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카롤리나 에레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세련미의 패션 거장

황미선

고급스러움, 여성스러움, 탁월한 감각. 바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카롤리나 에레라(Carolina Herrera)를 특징짓는 세 가지 키워드이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두터운 팬층을 거느린,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패션브랜드 ‘카롤리나 에레라’. 우아하고 세련되며 언제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은 오늘날 세계 패션 경향을 선도하는 패션의 중심지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중의 하나이다.

대중에게는 영화 『트와일라잇: 브레이킹 던』(2011)에서 벨라(크리스틴 스투어트 분)가 입은 우아하고 절제미가 매력적인 웨딩드레스로 다시금 유명세를 얻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3-2014)에서 한류스타 천송이(전지현 분)가 입고 나온 후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또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에 트레이드마크인 말끔히 다림질 된 하얀색 셔츠와 단정히 빗어 올린 금발의 짧은 머리가 빛나는 카롤리나 에레라는 히스패닉 출신의 패션디자이너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인물로 손꼽힌다. 패션디자이너로서 카롤리나 에레라는 부유하고 우아한 여성의 수요와 기호를 성공적으로 반영하여 대중에게 세련된 의상을 보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 제국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베네수엘라의 금수저 패셔니스타,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가 되다!

1939년 1월 8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한 카롤리나 에레라의 본명은 마리아 카롤리나 호세피나 파카닌스 이 니뇨(María Carolina Josefina Pacanins y Niño)이다. 아버지 기예르모 파카닌스 아세베도(Guillermo Pacanins Acevedo)는 공군 고위 장교 출신으로 카라카스 시장(1950-58)을 지냈다.¹⁾ 어머니 마

리아 크리스티나 니뇨 파시오스(María Cristina Niño Passios)는 자녀의 예절 교육을 중요시했으며, 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열정은 카롤리나 에레라의 심미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열세 살 때 할머니와 함께 한 파리 여행에서 스페인 출신의 유명디자이너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의 패션쇼를 관람한 것이 카롤리나 에레라의 첫 번째 오트쿠튀르(haute-couture)²⁾ 경험이었다. 이 경험이 매우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패션계에 몸담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열여덟 살이던 1957년에는 기예르모 베렌스(Guillermo Behrens)와 결혼하여 두 딸(메르세데스 카롤리나와 아나 루이사)을 둔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가 7년 만에 이혼한다. 그 후 어린 시절의 친구이던 레이날도 에레라(Reinaldo Herrera)와 1968년 결혼하여 2명의 딸(카롤리나 아드리아나와 파트리시아 크리스티나)을 두었다. 레이날도 에레라는 베네수엘라 사탕수수 농장의 대지주이자 예술품수집가이던 부친 돈 레이날도 에레라(Don Reinaldo Herrera)의 뒤를 이어 5대 토레 카사 후작(1972-1992)이 되었다.³⁾



『트와일라잇』에서 벨라의 웨딩드레스 (출처 :<http://tipsparaellas.com/famosos-y-fabulosos-top-inco-de-vestidos-de-novias/>)

1) 카롤리나 에레라의 백부 토마스 파카닌스 아세베도(Tomás Pacanins Acevedo)와 펠리시아노 파카닌스 아세베도(Feliciano Pacanins Acevedo)는 각각 장관과 중앙은행장을 지냈다.

2) 유명디자이너의 고급여성복을 지칭하는 패션용어.

3) 토레 카사 후작(Marqués de Torre Casa)은 1722년 스페인국왕 펠리페 5세가 카라카스의 크

이 두 번째 결혼은 카롤리나 에레라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카라카스에서 사는 동안에는 파티와 여행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최상류층은 물론이고 해외 유명인사와 일상적으로 교류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패션은 물론이고 상류층의 문화와 취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의 카롤리나 에레라는 떠오르는 사교계의 스타로서 베네수엘라 사교계의 완벽한 파티호스트로서 역할에 충신했다. 원저 공작부인과 그레타 가르보의 친구이던 시어머니 미



카롤리나 에레라 (출처: www.outfears.com)

미 에레라(Mimi Herrera)의 전설적인 파티에 카롤리나 에레라는 늘 함께했다. 타고난 미모와 부유한 환경 덕분에 카롤리나 에레라는 패션아이콘으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전설적인 패션에디터 다이애나 브릴랜드(Diana Vreeland)는 카롤리나 에레라를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 중 하나로 손꼽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테리어용 패브릭 제작에 관심이 있다는 카롤리나 에레라에게 다이애나 브릴랜드는 패션디자인을 제안한다. 다이애나와 대화를 계기로 카롤리나 에레라는 패션을 즐기지만 하던 소비자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컬렉션으로 형상화하는 패션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다. 이 당시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업계 경험은 재혼 전에 카라카스의 에밀리오 푸치부티크에서 일한 6개월이 전부였다. 그러나 남편 레이날도 에레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을 얻은 카롤리나 에레라는 마흔 두 살에 패션디자이너가

리오요가문 우르비나(Urbina) 家에 수여한 귀족 작위이다.

된 것이다.

1980년 9월 카롤리나 에레라는 자신만의 우아하고 세련된 취향과 스타일이 적극 반영된 20벌의 의상을 베네수엘라에서 뉴욕으로 가져와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쇼룸을 열어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보였다. 이 컬렉션이 호평을 받자, 이듬해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카롤리나 에레라 회사(Carolina Herrera Ltd.)를 창립했다. 이때 카롤리나 에레라 가족 또한 모두 패션의 중심지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초기에 비평가들은 카롤리나 에레라의 의상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모두들 한 두 해 정도 지나면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객은 점차 간절하면서도 절제된 세련미가 풍부한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스타일에 매혹되었고, 그 결과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카롤리나 에레라의 의상 론칭에 미국의 여성고객은 호의적이었다. 특히, 재클린 케네디와 에스티 로더 등 유명 인사가 주고객이 되면서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사업은 빠른 속도로 번창하였다.

사업 초기에 카롤리나 에레라는 카라카스와 뉴욕 및 유럽 등지를 오가며 쌓은 사교계 인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 특히 재클린 케네디와의 우정으로 유명세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카롤리나 에레라는 재클린 케네디의 만년에 12년 동안 전속디자이너가 되었다. 게다가 1986년 존 F. 케네디의 딸 딸 캐롤리나 케네디의 결혼식 웨딩드레스 제작은 카롤리나 에레라가 ‘브라이덜 라인’으로 패션분야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스페인의 향수제작사인 푸치(PUIG)사의⁴⁾ 마르크 푸치(Marc Puig)와 제휴하여 향수 분야에도 진출했다.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카롤리나 에레라는 향수에도 일가견이 있었을 뿐더러, 쿠튀르 디자이너들이 향수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이 당시에는 유행이었다. 어린 시절의 침실 창문 옆에 라벤더 덩굴이 있어서 향기가 주는 기분 좋은 설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카롤리나 에레라는 향수를 처음 사용할 때부터 지금까지 재스민 향을 베이스로 하는 향수와 캔들을 즐겨 사용하는 등 향수에

4) 푸치는 1914년 바르셀로나에서 창립한 향수회사인데, 스페인에서도 관례적으로 카탈루냐어 식으로 발음하여 ‘푸치’라고 부른다.

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휘했다. 카롤리나 에레라 스타일로 처음 출시한 향수는 여성적이며 우아한 플로럴 계열의 향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1996년부터는 카롤리나 에레라의 딸 카롤리나 아드리아나 에레라(Carolina Adriana Herrera)가 향수 사업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고, 일 년 뒤에 여성향수 '212'를 출시하여 젊은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212'이라는 이름은 카롤리나 아드리아나의 아이디어에 따라 뉴욕 맨해튼의 전화 지역코드에서 따온 것이다. 뉴욕은 최신 트렌드가 빠르게 반영되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이자 화려하고 변화한 현대도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카롤리나 에레라 사업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212라는 작명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섹스적인 향이 특징인 이 향수는 도시적이고 활동적인 현대여성을 타겟으로 여성스러우면서 캐주얼하고 섹시함을 강조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고, 3년 후에는 남성향수 212도 출시되었다.

현재 카롤리나 에레라의 향수는 크게 2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젊고 모던한 이미지의 '212' 라인 외에 카롤리나 에레라의 약자를 딴 CH라인은 풍부한 플로랄 향을 베이스로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을 반영한 매력적인 향의 고급 향수이다. 이후 'CH CALOLINA HERRERA', 'CHIC'(2002년), 'GOOD GIRL'(2016년)' 등의 후속 모델을 출시하여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상류층 여성의 맞춤형을 디자인하는 명품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카롤리나 에레라는 2001년에는 대중에게 더욱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기성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저가브랜드 CH Carolina Herrera를 론칭하며 사업의 다각화에 힘썼다. CH Carolina Herrera는 기성복은 물론 가방과 안경을 비롯한 다양한 패션액세서리를 제작하는 분야로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카롤리나 에레라 패션 제국의 기성복 라인은 과거 유명 패션잡지 『배너티 페어』(Vanity Fair)의 패션에디터로 활동한 카롤리나 에레라의 다른 딸 파트리시아(Patricia Cristina Lansing)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맡아 이끌어가고 있다.

쿠튀르 분야에서 시작된 패션브랜드 카롤리나 에레라는 현재 컬렉션 라인을 비롯해, 기성복 라인, 향수, 브라이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

수 라인은 세계 전역에 25,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기성복 라인은 북미 지역과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지역,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약 130개의 단독매장을 비롯해 400여개의 지점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카롤리나 에레라의 시그니처 컬렉션 라인은 소규모로 2000년에 오픈한 뉴욕의 부티크 매장 본점을 중심으로 달라스와 로스앤젤레스의 부티크 매장에서 유럽과 북미의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쿠티르 패션을 이어가고 있다(Women's Wear Daily, 2016).

패션디자이너로서의 35년 인생

지난해 10월, 수많은 패션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들 중 한 명으로 자주 선정되는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 인생 35주년을 기념하는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많은 여성에게 패션의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패션을 넘어선 자신감 넘치는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 온 카롤리나 에레라는 지난 패션인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지난 35년은 아름다운 여행이었어요. 여성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이라고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35년간 했다는 건 특별해요.”

패션에디터 제이제이 마틴(J.J. Martin)의 글과 아트 디렉터 파비앙 바론(Fabien Baron)과 함께 마리오 테스티노, 패트릭 드마쉴리에 등이 촬영한 패션 화보가 수록된 이 책에는 카롤리나 에레라의 지난 35년간의 패션 여정은 물론 디자이너로서의 패션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인터뷰 가운데 뉴욕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변화시킨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미국 『보그』지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있는데, 그녀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오늘날 세계 패션계에서 카롤리나 에레라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특별히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을 때면, 자연스럽게 카롤리나 에레라를 찾게 됩니다. 카롤리나 에레라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힘과 긍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수많은 여성에게 카롤리나 에레라는 여전히 ‘진정한 시크함’ 그 자체입니다.”

1981년 브랜드를 론칭한 후 초반에는 유명인의 인맥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이 상류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카롤리나 에레라는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충고한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감 있고, 현대적이며, 특히 아

름답다고 느끼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어요.” 이처럼 카롤리나 에레라는 세대를 초월하여 젊은이들부터 장년층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심플하고 절제된 우아한 패션 디자인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차분한 우아함을 원해요. 복잡하게 치장되지 않은 실루엣 그 자체로 말이죠. 절제되면서도 세련되고 단순한 실루엣을 원합니다. 휘양찬란한 디테일은 지겨워요. 각각의 디자이너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ABC.es, 2017.06.15.)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명인이 인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급변하고 냉혹한 의류산업분야에서 35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브랜드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전문적으로 패션디자인을 공부하지도 않은 카롤리나 에레라가 마흔이 넘는 나이에 자신의 패션브랜드를 만들고 현재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고집 그리고 인내심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카롤리나 에레라 본인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였다. 카롤리나 에레라는 현재 패션계에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인생 35년』 (출처: <http://www.rizzoliusa.com>)

서 우아함의 대명사로 언제나 대표되지만, 정작 그녀는 우아함을 갖춘 최고의 패션 아이콘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꼽는다. “엘리자베스 여왕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아이콘이에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 앞에서 왕족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내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꾸준히 무언가를 지켜내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아함이란 단순히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사고의 방식,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태도의 방식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카롤리나는 여성이 스스로를 존중하도록 용기를 준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야말로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대중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이다.

카롤리나 에레라는 회고하기를,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것들과 하이패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온 경험이 자신을 패션디자이너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하였다. 미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패션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갖추게 했고, 미래를 향한 직관력과 상업적인 패션 감각이 더해져 그녀의 패션왕국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나는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의 패션에 연연하지 말아야 해요. 색채나 미적인 것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만 과거로 회귀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전진해야 합니다. 미래는 항상 도전이에요.”

카롤리나 에레라는 다양한 영감을 받기 위해 자연에서의 산책과 다



『하퍼스 바자』 2016년 11월호
(출처: <http://news.joins.com>)

양한 종류의 문화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의 예로서,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영화를 보고 고유한 한국적인 패션의 우아함에 푹 빠져버렸다는 카롤리나 에레라는 2011년 봄/여름 시즌 뉴욕 패션 위크 컬렉션에서는 한복을 모티브로 저고리, 고름, 갓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 2017년 3월 15일에는 뉴욕 미술디자인박물관(Museum of Arts and Design)에서 한복진흥센터와 협업 제작하여 한복의 미를 살린 3벌의 의상도 선보였다. 카롤리나 에레라 하우스에서 제작된 이 작품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살리고 한국적인 문양과 자수를 놓아 고급스러움을 더한 파티 드레스와, 한복의 풍성함과 저고리 특유의 네크라인을 본떠 모던하게 제작된 단아한 분위기의 웨딩드레스, 한복의 고름을 모티브로 벨트로 재해석한 짧은 상의와 스타일리시한 치마의 투피스로 제작된 기성복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 통해 우리 한복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모던하고 우아한 카롤리나 에레라의 서양복이 조화롭게 콜라보레이션되며 각각의 분야에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카롤리나 에레라의 패션 여정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카롤리나 에레라는 인종과 나이, 전문적인 경험 부족 등의 약점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소신을 앞세워 패션의 중심지 뉴욕에서 그리고 세계패션계에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진력과 진취적인 자세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던지 또는 어디에 있던지 자신만의 스타일에 쫓아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카롤리나 에레라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황미선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